내년도 예산안 다룰 조계종 정기종회 개원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종정감사의 건, 법령 제개정안 등을 논의할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의원 80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회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는 내년의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1년 예산은 그해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집행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종회에서 먼저 그 사업의 적절성을 보고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스님 "긴 안목서 논의" 당부
원행스님 "한정예산서 효율 편성"

이어 스님은 "내년 우리 종단은 새로 종정예하를 추대하고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새 집행부의 출범, 종회의원 선거,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국 일선 사찰들의 분담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사업도 작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종법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에 주력할지를 정하는 것이기에 미래를 보는 긴 안목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혼란했던 시기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은 총무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라며 "돌아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의 여운이 남지만 혼란했던 종단이 안정을 되찾고 백만원력 결집으로 사부대중의 소중한 원력들이 함께한 시간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감동과 환희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의원 80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회했다.

스님은 "이번 정기회에 총무원 집행부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앙종무기관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세입의 감소는 중앙종무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2년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2021년 대비 동결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필수적인 사업과 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법인 관리에 있어 일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유지재단 재산 처분의 건과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 의식안 동의의 건 등을 제출했다"며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당부했다.

종앙종회는 이날 종정감사의 건과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휴회했다. 휴회기간 중 중앙종무기관과 종정감사를 진행한 뒤 11월 10일 오전 10시 속개할 방침이다.

첫 안건 호법부장 서리 현민 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민 스님은 "종단 화합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을 상정, 휴회를 선언하고 휴회기간 중 종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11월 10일 속개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조계종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우리말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의 불교왜곡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룬다.

종법 제개정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법계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 계단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과 선광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도심 스님이 대표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주요 인사안도 이번 정기회서 다룬다. 11월 7일 임기만료 예정인 초심호계위원 법성 스님과 법규위원 도호 스님이 연임으로 추천됐으며, 11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성곡 스님 후임에는 혜광 스님이, 11월 12일 임기만료되는 소청심사위원 보경 스님 후임에는 정견 스님이 추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은 10월 19일 사직한 도현 스님과 11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천웅 스님, 정오 스님 후임에는 명진 스님과 해량 스님, 도림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태고종, 비구니 차별 개선…분담금 정비

11월 4일 제143회 임시중앙종회
종법제·개정…부원장 등 인사안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발의한 '법계법'으로, 그동안 비구니에 대한 최상위 법계를 제한했던 제4조 승려 법계종별 조항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비구니 법계는 종덕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한다'를, '비구니 법계는 정사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그 자격기준은 종사와 같다'로 수정했다. 이는 비구니와 비구 법계에 대한 기존 차별을 없애고 종단 내 동등한 종도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개정취지에 따르면 비구니의 최상위 법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승교화를 표방하는 태고종의 종지종풍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비구니의 수행과 행해에 차별을 두어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비구니의 위상과 자부심을 향상하고 애종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종단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단 운영의 재정적 토대인 분담금 징수체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분담금 징수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주요 재정원인 분담금과 의무금 징수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18조 처벌규정을 신설해 미납 사찰 및 승려에 대해 미납액의 연체기간에 대한 년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기간 3년 경과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20%를 중가산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법'도 개정됐다. 종법상 제적 이상 징계자가 종단승려를 사칭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10항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종단 공식행사 및 본인의 사찰법회 등에 참석시키거나 징계자가 본종 법복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것을 방조한 자는 공권정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종회에서는 능해 스님이 재경부원장으로, 일로 스님이 교육부원장으로 추천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신임 원로의원에는 세명 스님과 경담 스님이 선출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과 부위원장 자명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호법위원 송헌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송지희 기자

'위드코로나' 대비 종교계에 방역준수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 11월 3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침이 완화되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국민들의 마음 치유 등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종교계가 그간 불편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종교활동도 정상화에 다가가게 됐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종교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일상회복 전환이 '방역이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지속해 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또 "온전한 일상회복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의 힘겨운 싸움으로 지친 국민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종교계가 정신적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조규만 부의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성전과 함께하는 '동안거' 정진

중앙신도회, 11월19일
온라인 수행정진 돌입

바람직한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수행바라미가 올해는 11월 19일부터 불교성전과 함께 동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관하는 수행바라미는 그동안 전국의 수행도량을 찾으며 신도조직 실무자 신심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올해 수행바라미를 통해 만나게 될 불교성전 강좌는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에서 개설한 '스토리로 만나는 불교성전'으로 불교성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좌는 총 54강으로 '제1장 거룩한 부처님'부터 '제4장 불국토 구현'까지 총 4명의 스님이 강사로 참여하며, 각 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좌는 평일 오전 10시, 줌(ZOOM)을 이용한 10여 분 길이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종정 보명당 석원정 (사서실장 석현경)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창종법회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1리 617 대원사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